

## 中・東歐

### 中・東歐 一般

#### 7월 1일 • GM社, 향후 중・동구 지역에 총 10억 마르크 투자키로

GM社가 향후 총 10억 마르크에 달하는 중・동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세계 자동차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GM社는 지난 2년 전만 해도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시장전망이 불투명해 對中・동구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 지역의 성장율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상회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고, 조속한 시기에 이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향후 동유럽시장에의 진입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일간무역)

#### 7월 5일 • 서울증권, 東유럽 투자펀드 1차분 8,000만 달러 매각

서울증권은 東유럽에 대한 投資펀드(ANZEELCDP) 1차분 모집금액이 5일 현재 8,000만 달러(760억원)를 넘어섰다고 발표함. 호주계 은행인 ANZ가 설립하고 서울증권이 한국내 판매대리점으로 참여하는 同 펀드는 투자수익률이 높은 CIS와 발칸국가 등을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삼고 있으며, 現地通貨表示 債券 및 短期金融商品에 투자하고 있음. 서울증권은 이르면 9월부터 일반투자자에게도 펀드판매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힘.(내경)

#### 7월 7일 • 루마니아・불가리아, EU와의 비자문제에 관해 여타 후보국과 동등한 대우 요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자국민들의 EU 국가 입국시에 적용되는 비자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EU측에 강력히 요구함.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EU 비자를 획득해야 하는 101개 국가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EU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10개 후보국들 가운데 유독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만이 현재까지도 별도의 EU 비자가 필요한 상황임.(F.T.)

#### 7월 8일 • 폴란드・체코・헝가리, NATO 가입 확정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담에서 16개 회원국 정상들은 중・동구국가들의 신입회원국 가입문제와 관련, 폴란드, 체코, 헝가리 3개국을 새회원국으로 받아들일기로 합의함. 이번 회담에서 프랑스는 루마니아와 슬로베니아를 새회원국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됨. 향후 NATO 16개 회원국은 각각 신입후보국을 놓고 자국 의회의 비준을 거치게 되며, 후보국도 제각기 국민투표 등 추진절차를 밟게 됨. NATO가 후보국을 신입회원국으로 정식초청하는 것은 그 다음이며, 각종 절차를 마치고 후보국이 정식회원국이 되는 것은 NATO 창설 50주년인 99년 4월 4일로 예상되고 있음.(F.T.)

#### 7월 9일 • EU 집행위, EU 擴大를 위한 豫算 책정

EU 집행위원회는 중・동구국가들의 EU 가입을 위한 지역개발원조(regional aid)를 위해 404억 달러(450억Ecu)를 책정함. EU 집행위는 기존의 EU 회원국

들 중 일부국가에 지원되는 지역개발원조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중·동구 국가들의 가입을 위한 지역개발원조에 충당함으로써 EU의 확대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한편 99까지 EU의 지역개발원조를 받을 예정이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의 경우 새로운 국가들의 가입으로 지원이 감소하게 되어 이와 관련한 국가간의 갈등이 예상됨.(F.T.)

**7월 11일 • 韓國의 對러시아·동구 輸出, 96년중 56.1% 증가**

96년중 러시아를 비롯한 중·동구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전년대비 56.1%나 증가한 4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2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그리고 향후 對러·동구 수출은 연평균 25% 정도 증가해 2000년에는 12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한국)

**• EIU, 중·동구지역의 97년 경제성장세 둔화 전망**

영국의 EIU는 舊소련을 제외한 중·동구 경제가 점증하고 있는 國際收支問題로 인해 97년의 성장폭이 작년에 이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EIU는 중·동구 지역의 경제성장율은 95년의 5.4%, 96년의 3.7%에서 금년에는 3.2%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구소련 및 중·동구의 전반적인 경제는 러시아의 근소한 플러스성장과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지역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금년에는 공산체제 붕괴 이후 처음으로 약 1.4%의 플러스성장이 예상되고 있음.(F.T.)

**7월 15일 • EU, 우선가입대상국으로 6개국 지명**

EU 집행위원회는 EU의 회원국 확대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10개 가입신청국별 정치경제여건을 감안해 우선가입대상국으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 6개국을 지명함. 집행위의 결정은 금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회원국 가입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이에 따라 내년초에 이들 국가와 EU간의 가입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대상국선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위 권고안에는 키프로스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협상개시시기나 가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F.T.)

**7월 29일 • EU, 중·동구의 加入과 往來自由化와는 별개 문제**

EU 집행위원회는 중·동구제국이 EU에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국가에서 EU 각국으로 入國하는 경우 國境에서의 여권검사 등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사람의 자유로운 왕래를 규정하고 있는 센겐協定에 각국이 별도로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현재 EU내에서는 12개국이 同 협정에 정식 가입하여 여권심사없이 자유로운 왕래를 하고 있음.(日經)

**7월 30일 • 폴란드·체코·동독지역의 홍수피해, 55억 달러 규모**

獨逸의 대형 재보험사인 Munich Re社는 이번에 중동부유럽 지역에 발생한 금세기 최대폭우와 홍수로 폴란드, 체코, 독일 동부지역의 피해액만도 55억 달

러(100억 마르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함.(F.T.)

## 폴란드

### 7월 1일 • Bank Handlowy 株價, 14% 상승

폴란드 최대의 사유화로 기록되고 있는 Bank Handlowy 주식이 6월 30일 바르샤바 증권시장에서의 첫날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날 Bank Handlowy 주식의 증가는 무려 14%나 상승한 37.9줄로티를 기록하였음.(F.T.)

### 7월 2일 • 로케트전기社, 大宇와 합작으로 폴란드 최대 배터리공장 인수

로케트전기社가 (주)大宇와 합작으로 폴란드 최대 건전지회사인 일렉트론社의 지분 75%를 1,500만 달러에 매입함. 폴란드 북부 스타로가드 그단스크에 위치하고 있는 일렉트론社에 대한 지분은 로케트전기(전체지분의 52.5%)와 대우(22.5%)가 각각 7:3의 비율로 보유하게 되며, 로케트전기가 경영과 생산을, 대우가 마케팅을 담당하게 됨.(매경)

### 7월 5일 • 중앙은행, 對EU 무역적자 확대에 위기감 표명

94년 15억 달러에 불과했던 폴란드의 對EU 무역적자 규모는 95년 27억 달러로 증가되었으며, 96년에는 75억 달러로 급증함. 금년에도 5.5% 전후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에서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여 對EU 적자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총교역규모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금년에는 약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EU가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주요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EU와의 교역을 통해 構造的인 무역적자가 정착되고 있는 현상에 정책당국은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중앙은행은 98년중 전체 무역적자가 1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內需抑制을 위한 대폭적인 재정적자 감축을 요구하고 있음.(日經)

### 7월 6일 • 美델파이社, FA크로스노社 인수

미국의 델파이 오토모티브시스템社는 대우자동차 등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폴란드의 자동차제동장치 생산업체인 FA크로스노社를 인수한다고 발표함. 크로스노社는 종업원 수 2,000여명의 중견 부품업체로, 그동안 대우와 피아트 등에 완충장치 조향시스템부품 등을 공급해왔음. 델파이社는 이 공장에 3,000만 달러를 새로 투자해 생산능력을 확충할 계획임.(한경)

### 7월 8일 • 폴란드, 이스라엘과의 自由貿易協定에 假서명

폴란드 정부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하였으며, 7월중 바르샤바 방문중에 정식 체결될 것이라고 발표함. 同 협정은 98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 협정이 발효되는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는 99년 1월

부터 폐지될 예정이지만, 섬유류에 대한 관세는 2000년에 가서야 철폐될 것으로 예상됨.(KOTRA 해외시장)

**7월 9일 • 홍수, 폴란드 남부 강타**

금세기 최대의 홍수사태를 겪고 있는 폴란드는 이미 6,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1만여 가구 및 공장이 침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번 폭우와 홍수로 남부지방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 또한 3만 5,000헥타의 토지가 수몰된 것으로 보도됨. 금번 홍수피해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나타난 재산피해규모가 1억 달러를 훨씬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F.T.)

**7월 16일 • 정부, 홍수구제 위해 의회에 緊急資金 승인 요청**

정부는 홍수구제를 위해 중앙은행에 요청한 25억 즐로티(7억 6,000만 달러) 상당의 緊急資金支援을 승인해줄도록 의회에 요청함. 시모세비치(W.Cimoszewicz) 총리에 따르면, 同 차입금은 금년 재정적자 계획규모(122억 즐로티)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F.T.)

**7월 17일 • 정부, PBK에 대한 입찰 취소**

정부는 당초 시행하려던 PBK의 지분 65%에 대한 입찰을 취소하는 대신, 同 은행의 지분 51%를 바르샤바 증권시장에서 公募(float)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힘.(F.T.)

**7월 21일 • 스웨덴 정부, 폴란드를 잇는 海底 電力케이블 건설계획 승인**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과 폴란드를 잇는 3억 2,000만 달러 규모의 해저 전력케이블 건설계획을 승인함. 발틱海 아래 설치될 예정인 이 해저케이블은 규제가 없는 北유럽 電力市場과 舊소련 발틱국가들간의 직접적인 電力交換을 처음으로 가능케 할 것임.(F.T.)

**7월 23일 • 세계은행 · EIB, 폴란드의 홍수구제 위해 3억 달러 공여**

세계은행과 유럽투자은행(EIB)은 7월의 대규모 홍수피해 구제를 위해 3억 달러 상당의 긴급재건차관을 공여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폭우와 홍수가 폴란드 경제에 미친 피해규모는 34억 즐로티(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F.T.)

**7월 29일 • 정부, 홍수피해 구제 위해 特別債券 발행 검토**

체코에 이어 폴란드 정부도 홍수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채권의 발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8일 시모세비치(W.Cimoszewicz) 총리가 금년중에는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원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현지 관측통들은 내다보고 있음. 정부는 이미 금년예산 가운데 6억 5,000만 즐로티를 사용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25억 즐로티를 차입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EIB로부터 약 6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공여받을 계획임. 정부는 이번 홍수가 경제에 미친 피해액을 34억 즐로티로 추산하고 있지만,

세계 최대의 재보험사인 Munich Re社는 28일 폴란드의 피해 규모를 16억~27억 달러로 상향조정함.(F.T.)

## 체 코

### 7월 1일 • 政府, 대규모 제철업체의 정부소유지분 줄이기로

정부는 체코의 2대 製鐵業體 중 하나인 Nova Hut社의 정부소유 지분비율을 50% 미만으로 줄일 방침임. 이는 同 社가 국제금융공사(IFC) 및 은행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관하는 2억 5,000만 달러의 차입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임. 이번 借入의 전제조건으로 국유기업인 Nova Hut社는 自社株式 18.5%를 Komerčni Bank 및 Credit Suisse First Boston에 양도기로 합의한 바 있음.(F.T.)

### 7월 17일 • 政府, 홍수구제 위해 起債 예정

정부는 8월 1일자로 10억 코루나(3,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예정인데, 이 중 1차분인 5억 코루나를 홍수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달에 내린 폭우로 체코 동부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 바, 엄청난 인명과 재산손실이 발생했으며, 産業시설에 대한 피해로 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음.(F.T.)

### 7월 23일 • 通商産業部, 産業과 小賣부문에 대한 홍수피해규모만도 7억 2,900만 달러로 추정

통상산업부는 이번 폭우와 홍수가 체코 산업 및 소매부문에 미친 피해규모만도 7억 2,900만 달러(250억 코루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함. 또한 이번 홍수로 엘베江 인근에서만 1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으며, 3대 도시로 꼽히고 있는 Ostrava市에는 아직도 비상사태가 발효중임. 체코의 인프라와 전기 통신시설도 최소 55억 코루나의 손실을 입었으며, 15개의 교량과 946km의 철로가 유실됨. 한 민간경제연구소측은 이번 홍수가 체코 경제에 미친 손실규모는 2,000억 코루나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음.(F.T.)

### • 財務部, 3개 상업은행 매각계획 발표

필립(I.Pilip) 재무장관은 8월 20일 체코 4대 상업은행 가운데 3개 은행을 매각하는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이들 3개 은행은 Komerčni Bank, Sporitelna Bank, CSOB Bank로, 정부는 이번 매각시 이들 은행에서의 政府管理持分(controlling stakes)도 매각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F.T.)

### 7월 25일 • 日本 노무라投資銀行, 國有 商業銀行 IPB 인수

일본의 投資銀行인 Nomura Securities社는 체코의 국유 부실은행인 IPB (Investicni & Postovne Banka)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약 3억 5,000만 달러(120억 코루나)를 지불기로 함. 체코 정부는 同 은행의 국유지분 36%를 노무

라투자은행에 약 60억 코루나에 매각하는 것을 24일 승인함. 노무라측은 同 은행의 増資를 위해 추가로 60억 코루나를 지불할 예정임. IPB는 자산규모에 있어 체코의 3대 상업은행임.(F.T.)

## 헝가리

### 7월 1일 • 정부, 최초로 전국 商業放送 인가

정부는 6월말일 오랫동안 지연되어 오던 최초의 2개 전국적인 상업방송국을 인가함. 유럽의 최대 방송그룹인 CLT-Ufa社와 Walt-Disney社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candinavian Broadcasting System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이번 인가를 획득함.(F.T.)

### 7월 11일 • 헝가리, 새로운 民間 發電所 입찰 실시키로

헝가리는 향후 2주내에 25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2,000MW급의 새로운 민간 발전소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임. 國有電力公社인 MVM社측에 따르면, 새로운 발전소는 2001년에서 2006년내에 가동될 예정이며, 공급자를 다양화하기 위해 치열한 국제입찰을 기대하고 있음. 현재 헝가리 전력용량인 7,500MW 가운데 약 60%가 민간의 손에 넘어가 있으며, 이 중에는 AES社 및 EL Paso社 등 2개의 미국 發電業體가 포함되어 있음.(F.T.)

### 7월 15일 • 議會, 年金改革法案 승인

議會는 내년초부터 이루어질 전면적인 年金制度改革에 관한 일괄법안을 승인함으로써, 헝가리는 이 지역국가 중 공산주의시대의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최초의 국가가 됨. 폴란드는 99년에 이와 유사한 개혁에 착수할 계획임. 새로운 연금제도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규정은 社會保障年金基金(social security pension fund)이 운영하는 기존의 원천징수방식(pay-as-you-go system)을 民間基金으로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종업원들은 이 민간기금을 통해 미래에 자신이 납부한 연금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음.(F.T.)

### 7월 17일 • 아일랜드 保險社, 國有 K&H은행 인수

아일랜드의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Irish Life社가 헝가리의 국유 신용상업은행인 K&H은행(Kereskedelmi Es Hitelbank)의 지분 56%를 9,000만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이 회사로는 최초로 중・동구지역에 진출함. K&H은행은 154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헝가리의 2대 은행으로, 자산규모(220만 달러)로는 3위이고, 헝가리 전체 수신고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음.(F.T.)

## 슬로바키아

**7월 3일 • 교육부, 歷史교과서 회수**

교육부는 제2차대전중 슬로바키아의 나찌괴뢰정권하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한 역사교과서를 학교로부터 회수조치함.(F.T.)

**7월 22일 • 슬로바키아, 輸入課徵金 부과키로**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체코와 유사한 輸入預置金制度(Import Deposit)를 도입한 바 있는 슬로바키아는 同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전체 輸入품목 중 80%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7%의 수입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함. 이 수입과징금은 98년초 5%로 낮아지며, 7월부터 다시 3%로 인하되어 98년말까지 존속될 예정임. 同 과징금은 원재료 및 일부 시설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부과될 예정이어서 완제품 수출이 주종을 이루는 국내 수출업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슬로바키아의 96년중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1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 심화로 경상수지 적자규모 역시 20억 달러에 육박해, 97년중에는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무려 1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일간무역)

## 불가리아

**7월 1일 • 벨기에 Union Minière社, 新정부하 최초의 私有化계약 체결**

벨기에의 금속그룹인 Union Minière社는 불가리아의 최대 제련업체인 MDK社의 지분 56%를 8,000만 달러에 인수한다는 데 합의함. 이번 계약件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우파정권이 집권한 이후 이루어진 최초의 사유화건임. Union Minière社는 제련용량을 증가시키고, 소피아 동부지역인 Pirdop에 소재하고 있는 MDK社에 새로운 제련소를 건설하기 위해 향후 2억 2,0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불가리아 사유화청이 밝힘. 同 투자로 생산 용량이 35% 정도 증가하게 되며, 공장지역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것임.(F.T.)

**7월 22일 • 최초의 국유은행 私有化件, 완료**

불가리아는 國有銀行인 United Bulgarian Bank의 지분 65%를 미국의 증권회사인 Oppenheimer社와 EBRD에 각각 移轉함으로써 최초의 私有化件을 마무리지음.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금번 사유화건은 IMF 대기성차관 지급의 전제조건인 바, IMF는 금년초 승인한 待機性借款(6억 5,000만 달러) 가운데 1억 4,000만 달러에 이르는 차기 지급분 공여의 전제조건으로 국유은행의 사유화를 제시한 바 있음. Oppenheimer社는 상기 은행의 지분 30%를, EBRD는 35%를 각각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35%는 불가리아 최대 국유은행인 Bulbank에게 돌아감. Bulbank는 98년중 사유화될 계획임.(F.T.)

**7월 25일 • 國有항공사, 금년 1~5월중 損失 감소**

불가리아 國有항공사인 Balkan Airlines社는 98년의 사유화에 대비한 금융구조재편을 통해 금년 1~5월중 손실규모(1,000만 달러)를 40% 포인트 감소시킴.(F.T.)

## 루마니아

**7월 18일 • 政府, 다음주중 國有 電氣通信公社에 대한 1차 私有化 개시**

루마니아는 다음주중 루마니아 국유 전기통신공사인 Rom Telecom社에 대한 제1차 사유화를 개시함. 금번 매각건은 매각대금이 4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여, 중・동구 최대의 사유화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미 36개 신청은행 가운데 10개 주요 투자은행이 선발되었으며, 이들 10개 은행이 정부의 자문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F.T.)

**7월 23일 • 헝가리, 트란실바니아 Cluj에 領事館 재개설**

헝가리 정부는 루마니아의 부크레슈티 북서쪽 200마일에 위치한 트란실바니아 지역의 Cluj에 영사관을 재개설함. 이 트란실바니아 지역은 루마니아내 대부분의 헝가리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Cluj 소재 영사관은 공산주의 독재자 차우세스쿠 시절 폐쇄된 이래 9년만에 재개설된 것임. 이로써 兩國간의 관계가 뚜렷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음.(F.T.)

## 舊 유 고

### 〈舊유고 一般〉

**7월 14일 • 유고戰犯, 20년형 선고**

UN 유고전범재판소가 전범 혐의로 기소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두산 타디치(41세)에게 20년형을 선고함. 이로써 전범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지기는 2차대전 이후 처음임. 타디치는 세르비아계의 보스니아 회교도들에 대한 ‘인종 청소’가 자행되던 92년 5~12월 사이 보스니아 북서부의 여러 수용소에서 회교도 13명을 학살하고 18명에게 고문을 가한 혐의로 94년 2월 뮌헨에서 체포되어 이듬 해 4월 전범재판소에 인계됨.(동아)

### 〈세르비아 - 몬테네그로〉

**7월 10일 • 세르비아 議會, 財務長官 선출**

세르비아 議會는 블라드코비치(D.Vlatkovic) 前재무장관이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됨으로써 공석이 된 재무장관職에 유고좌파연합(Yugoslav Left party) 소속의 밀라시치(B.Milacic)를 선출함.(F.T.)

**7월 15일 •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 新유고연방 대통령으로 선출**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르비아-몬테네그로연방 兩院에 의해 新유고연방 대통령으로 선출됨. 이날 연방 하원은 138명 중 88명이, 상원은 40명 중 29명이 밀로세비치에게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밀로세비치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함. 밀로세비치는 지난 14일 연방의회 대통령 후보지명위원회에 의해 유일후보로 선정됨.(F.T.)

**7월 16일 • 세르비아 정부, 9월중 大選과 總選 실시키로**

정부는 오는 9월 14일에 세르비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함.(F.T.)

**7월 23일 • 밀로세비치, 新유고연방 대통령으로 취임**

세르비아 지도자인 밀로세비치(S.Milosevic:55세)가 TV와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의회에서 4년 임기의 연방대통령으로 취임함. 그는 이 자리에서 '평화, 전진, 그리고 번영'의 세르비아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함.(F.T.)

**7월 24일 • 세르비아 議會, 私有化法 승인**

세르비아 의회는 5,000여개 중소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전하게 될 사유화법을 채택함. 同 法에 따르면, 제1단계 사유화는 세르비아 총선 이후인 10월 31일에 개시될 예정이며, 제2단계 사유화는 1단계 사유화가 종료 후 120일내에 개시됨. 제1단계 사유화를 통해 사유화대상 중소기업의 前·現職 종업원들에게는 근로연수에 비례해 소속기업의 주식을 220달러(400마르크)까지 무료로 공여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됨.(F.T.)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7월 1일 • 보스니아, 런던클럽과의 舊유고債務 리스케줄링에 원칙적 합의**

듀니치(Danko Djunic) 연방정부 부총리가 이끄는 보스니아 협상단은 런던에서 舊유고시절 부채에 대한 런던상업은행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보스니아가 총부채 4억 400만 달러를 책임지지만, 단지 1억 5,000만 달러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상환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함. 총부채 4억 400만 달러는 구유고가 88년의 NFA(New Financing Agreement) 조건하에서 외국상업은행에게 진 42억 달러의 상업차관 가운데 10.58%에 해당되는 금액임. 협상단은 Chase Manhattan Bank가 주도하는 ICC(Interan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와 未決부분에 대한 협상을 가진 이후인 7월말 다시 채권단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힘. 보스니아와의 이번 합의는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등에 적용

된 기준보다 상당히 관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크로아티아 등과의 협상에 서는 일부 利子만을 구제해 주었을 뿐, 元金에 대해서는 어떠한 삭감도 없었 음.(F.T.)

• 플라브시치 세르비아系 대통령, 세르비아系 경찰에 한때 구금

스르프스카공화국의 플라브시치 대통령은 공식적인 영국방문을 마치고 베오 그라드로 돌아오자마자, 실질적으로 카라지치(R.Karadzic)의 조종을 받고 있는 세르비아系 경찰에 의해 한때 구금상태에 들어감. 세르비아系 영토로 접어 든 이후에도 비예리나(Bijeljina)에서 구금상태에 있었으며, 이후 NATO 평화 유지군(SFOR)의 호송하에 바냐루카(Banja Luka)로 돌아옴. 이는 플라브시치가 카라지치의 최측근인 카야치(D.Kijac) 내무부장관을 밀수 등의 혐의로 제거하 려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발생한 것임.(I.H.T., F.T.)

7월 3일 • 플라브시치 대통령, 議會 解散

보스니아 세르비아系 플라브시치(Biljana Plavsic) 대통령은 반대파들과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자 의회해산과 함께 오는 9월 1일 총선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 표함.(日經)

7월 5일 • 세르비아系 議會, 대통령 탄핵 표결

세르비아系 議會는 전격적인 의회해산을 선언한 플라브시치 대통령을 탄핵하 기 위한 표결을 실시함. 의회는 대통령이 유고 또는 탄핵될 경우 그 권한을 최 고국방평의회에 이양하도록 하는 緊措措置法을 통과시킨 뒤 플라브시치 대통 령에 대한 탄핵투표에 돌입함. 데이턴 평화협정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플라브 시치 대통령은 반대파들과의 권력투쟁이 격화되자 지난 3일 의회해산을 결정 하였으며, 현재 세르비아계 의회는 전범으로 기소된 前세르비아系 지도자인 카 라지치 추종세력이 장악중임.(경향)

7월 10일 • NATO軍, 보스니아戰犯 첫 체포

NATO의 평화유지군은 보스니아 전범 용의자 색출을 위한 첫번째 작전을 벌 여 보스니아 세르비아系 2명을 체포함. 사라예보의 소식통들은 이날 체포된 두사람은 보스니아 북서쪽 마을 프리예도르의 前경찰서장인 시모 드를야카와 이 지역 병원 책임자인 미코 코바세비치라고 확인함.(조선)

7월 16일 • 독일 최대 化學業體, 보스니아에 合作會社 설립

독일 최대의 화학 및 제약업체인 Hoechst社는 보스니아에서 공업용 가스를 생 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모스타르에 소재하고 있는 한 회사의 지분 51%를 매 입했다고 밝힘. Hoechst社는 가스충전소를 설립하고 기존 공장을 확대하고 현 대화하기 위해 200만 마르크(11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임.(F.T.)

• 보스니아 英國軍기지, 연쇄 폭발

세르비아系가 장악하고 있는 보스니아 북부의 한 영국군기지에서 이날 4건의 연쇄폭발사건이 발생했다고 정부소식통이 밝힘. 이날 폭발사건은 영국군이 보 스니아 평화유지군과 함께 세르비아계 전범 용의자들을 최초로 급습한 지 1

주일만에 발생한 것임. 앞서 보스니아에서는 서방이 전범들에 대해 체포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자 국제관리들이 사용하는 차량 및 건물에 대한 폭탄테러가 있었으며, 16일에는 미군병사 1명이 피습된 바 있음.(조선)

**7월 20일 • 플라브시치 세르비아系 대통령, 所屬黨서 축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플라브시치 대통령이 권력투쟁을 벌이던 집권 세르비아민주당(SDS) 강경파들에 의해 소속당에서 축출되었다고 SRNA 통신이 보도함. 세르비아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지도위원 84명 중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르비아계 거점 팔레에 모여 대통령 출당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함. 플라브시치는 전범으로 기소된 前세르비아계 지도자 카라지치 세력이 장악한 의회 강경파들과 데이턴 평화협정 이행을 둘러싸고 권력투쟁을 벌여옴.(조선)

**7월 23일 • 보스니아 再建會議, 11억 달러 지원키로**

EU 집행위원회와 세계은행은 브뤼셀에서 97년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재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함. 同 회의에서 EU, 미국, 일본 등이 11억 달러를 지원키로 합의함. 세계은행은 97년도 재건자금 소요액을 14억 달러로 잡고 있는 바, 同 부족분은 국제기관이나 기타 국가의 지원을 받을 계획임.(産經)

〈슬로베니아〉

**7월 3일 • 議會, 企業引受에 관한 최초 법안 승인**

議會는 기업인수(takeovers)에 관한 슬로베니아 최초의 법안을 승인함. 이로써 증권감독원(Securities Market Agency)은 기업주식의 25% 이상을 매입하는 모든 거래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同 법은 납입자본금(equity capital) 규모가 최소 630만 달러(10억 토라르)에 이르고, 루블리아나 증권거래소에 上場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주주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 또한 새로 사유화된 업체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규모가 8억 토라르 이상이면 가능함. 同 법은 7월말부터 발효될 예정임.(F.T.)

**7월 15일 • 議會, EU 準會員國協定 비준**

의회가 EU와 체결한 準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비준함으로써 슬로베니아는 EU 正會員國 가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음. 同 협정은 슬로베니아에서 1년 이상이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음. 하원은 전체 90명 중 70명이 찬성하고, 3명 반대함으로써 이번 비준을 이루어냄.(F.T.)